

담양, 평생학습동아리 모집
팀별 100만 원 내외 지원

담양군에서는 군민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을 통한 개인의 성장, 나눔 문화 확산, 주도적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동아리란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아 발전 및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팀별 100만 원 내외이며 지원 항목은 감사비, 교재 및 재료비이며 담양군민으로 구성된 8명 이상의 성인, 가족 학습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 의약업소 자율점검제 시행

영광군은 의약업소의 안전한 운영과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업소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의약업소 스스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료인 등의 면허 범위 내에서의 업무 이행 △신고 사항 이행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입회회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의료 광고 준수 △올바른 의약품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축제가 만났다” 공식 교류

‘정남진 장흥 물축제 in 송크란’ 홍보 부스 운영 업무협약 맺고 2년째 축제 교류단 운영 등 협업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축제가 물을 매개로 만났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교류단이 최근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에서 송크란 축제와 공식 교류행사를 가졌다.

공식행사에는 장흥 교류단의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이 참석하고 태국은 태국 관광청 닛 크口술국장 및 부국장, 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양측은 송크란 축제가 갖는 복을 빌고 액운을 씻어내는 손씻을 퍼포먼스와 장흥 물축제의 물의 의미인 장수, 건강, 치유를 나타내는 편백수

건배와 물뿌림 퍼포먼스로 공식 행사를 열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in 송크란 홍보 부스에서는 K-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K-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이날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식방문은 지난해 6월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에서 장흥군-태국정부관광청-전라남도가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4년 태국 송크란 축제 관계자가 장흥 물축제를 방문한 것에 대한 공식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는



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양측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자는 목표 아래 업무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 물축제의 물은 치유, 건강, 장수를 의미, 태국 송크란 축제의 물은 액운을 씻어내고 복을 받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축제 모두 물을 통해 상대를 축하하는 공통점이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식 방문 행사를 통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K-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기억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만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전남 장흥군 담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태국 전통 공연단 초청 공연, 태국 송크란 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두 축제간의 끈끈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토마토빨나방 사전 예찰·방제 당부

담양군은 토마토재배 농가에 토마토빨나방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힘써달라며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토마토빨나방은 가지과 식물을 선호하는 해충으로 특히 토마토에 대한 기주 선호도가 크며, 알-유충(1~4령)-번데기-성충의 발육단계를 거친다.

기온 27℃ 조건에서 1세대 발육기간이 평균 24일부터 38일 소요되며, 1년에 8에서 12세대 발생할 정도로 생육이 왕성하다.

특히 고온기인 여름철에 발생 밀도가 증가할 수 있어 재배 농가의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 양상을 보면 유충이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내부 조직을 넓게 갉아먹는다.

어린 유충은 잎, 줄기, 꽃을 가해하고 다 자란 유충은 잎, 줄기, 꽃뿐만 아니라 열매에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또한 크기유충 약 0.9~7.5mm, 성충 약 6~7mm)도 매우 작아 시설하우스 방충망으로는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토마토 빨나방 예찰을 위해서는 성유인 물질(성페로몬) 트랩을 활용하면 발생 여부를 상시 관찰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토마토빨나방은 번식력이 강하고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기 예찰과 발 빠른 약제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양=강영국 기자

장성군 캐릭터 ‘성장이’·‘장성이’ 9급 공무원 됐다

임용장 수여... 급여는 ‘군민의 사랑’



장성군의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가 지난 14일 장성군 지방홍보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밝혔

다. ‘성장이’와 ‘장성이’는 장성군의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의 초성인

시옷(ㅅ)과 지읒(ㅈ)을 활용한 캐릭터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날개와 망토는 장성의 변화와 성장을 표현하며, 활기차고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손을 맞잡은 모습은 협력과 조화로운을 나타낸다.

임용장을 수여한 김한종 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장성 방문의 해' 운영 등 올해 중요한 행사가 많다"며 "성장장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장이’와 ‘장성이’는 기획실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군민의 사랑과 관심’이다. 퇴근 후에는 기자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 ‘가가호호’ 공모 선정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가가호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가가호호’ 공모 사업은 가족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꿈의 무용단’ 공모 사업에 전남지역 최초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 단위로 대상을 넓혀 인문학 요가, 목공 체험 등 7가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오는 5월31일 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화순 남산공원 코컬립 프로젝트’,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천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유정현 기자

영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등 현장점검

주요 취약지역 중점 실시

영광군은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5일, 두우 배수펌프장과 인명피해우려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시행된 사전 대비 조치로, 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 상태와 가동 준비 상황,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자연재난은



사전 준비, 대피 및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취약지역의 시설물 점검과 보완 조치를 철

저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함평, 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신뢰받는 행정 앞장

함평군이 군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에 나서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함평군은 15일 "2025년 상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이 이날 오전 함평엑스포공원 주체영상관에서 군청 소속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정해수 박사가 강단에 올라 ▲이해충돌방지법 ▲정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



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병행

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교육이 다시 한번 청렴한 함평군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청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3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렴 시책 발굴과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만들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